

Issue Comment

- ✓ 요금인하율 상향 확정. 추가적인 요금인하 정책 준비 중
- ✓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단기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부담요인
- ✓ 5G, 배당매력, 신규비즈니스 등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

통신서비스: 요금인하율 상향. 최악은 피했으나, 추가적인 요금인하 리스크는 부담

요금할인율, 최악은 피했으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안이 확정되었음.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예정. 통신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요금할인은 매출의 차감요인으로 이동통신 ARPU 하락이 예상됨. 또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매출의 감소이므로 매출 감소분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요금할인율 25%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015년 4월 26일부터 요금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되었는데 당시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었음.

추가적인 요금인하 리스크는 부담

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판단.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을 논의하기로 함. 또한 보편요금제 실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준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업체 실적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 있음. 추가적인 요금인하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통신업체의 단기 주가 상승여력도 다소 제한적인 상황.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내 통신주

통신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통신업체 주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글로벌 통신업체 대비 배당 및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며, 5G 상용화 이후 ARPU 반등,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대, IoT, 자율주행차 등 신규 비즈니스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통신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라 판단. 이에 따라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